

여성들이여 일상에 시비를 걸자!!

여성 주의 자치 모임 "1312"

8호 소식지

'1312' 는

여성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여성 주의가 너무나 아름다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여성들끼리

뽀개 신나는 일을 저지르고

싶어 모인 곳이다.

●선거를 치르고 난 뒤...●

지난 10월 말부터 "영남대에서 여학생들의 시각으로 여학생들만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학생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1312시비쟁이들은 99년을 위한 선거에 뛰어 들었다. 양녀언니가 총여선본부장, 뽀뽀이와 떠리가 각각 총여 별동대장, 비서장으로 랑네가 문과대 여학생회장 후보로 결의하고 11월 3일부터 선거 운동을 했었다. 표면적인 결과는 패배였지만 이번 선거에서 1312가 얻은 것은 많았다.

첫째, 시비쟁이들과 총여의 독립이다. 물론 경제적으로 지원자이자 든든한 동지였던 여성 연대 총여가 졌기 때 문이기도 하지만, 총여학생회와 1312의 독립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그 시기가 좀 더 빨라진 것, 그리고 타의적이라는 것뿐이지 결코 1312에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학생회'라는 공식적인 공간이 아닌 자치 모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좀 더 여학우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여학생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시비쟁이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둘째 선거기간동안 영대에서 여학생 운동을 하는 새로운 인자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 할 수 있었고 대중 여학우들의 생각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다. 일명 '음대 사건'도 이 시기에 알게 된 새로운 인자들과 함께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음대 나름의 분위기를 이렇게 빨리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번 사건을 풀어 나가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었을 것

이다. 다른 단위의 여학생회 사람들과 인맥을 튼 자리로써 시비쟁이에게 선거는 또 하나의 득이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선거 기간에 그 짧은 시간에 농축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직접 행동' '여대생 실업 문제'등 공약이나 정책을 만들면서 알게 되었던 이론들, 아마 다른 기간에 공부하려고 했다면 이만큼 많이 공부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반면에 선거기간동안 시비쟁이들이 잃었던 것도 많다. 1312방이 마치 총여 선거작업방처럼 쓰여져서 선거에 결합하지 않았던 시비쟁이들이 많이 당황했다고 한다. 그리고 선거에 결합했던 시비쟁이들도 그 동안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한동안 힘이 빠져 1312를 소홀히 했던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너무나도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던 선거는 1일에 끝이 났고 그 뒷수습도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이제 앞으로 선거에 관한 것들보다 1312활동에 신경을 썼으면 한다. 선거를 하면서 얻은 것, 그리고 잃은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1312속에서 장점으로 녹여 낼 수 있는 11월, 12월이 되었으면 한다.

-랑네 생각

●일곱 가지 여성 콤플렉스, 그 교묘한 굴레...●

짜가

10월 28일에 있었던 스터디 후의 짜가 나름의 정리들이다.

.착한 여자 콤플렉스- 대부분 가장 공감을 많이 하는 콤플렉스다. 나역시...

'착한 여자'라는 한마디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할 말도 삼켜 버리게 하고, 조신한 척 내숭을 떨게 하는, 한마디로 여자들을 바보로 만드는 콤플렉스다. 죽을 때까지 여성을 남성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강박관념인 것이다. 재롱을 부리는 개에게 과자 하나 던져 주듯이 '착한 여자'라는 달콤한 과자에 우리들이 놀아나고 있는 건 아닐까?

.신데렐라 콤플렉스- 아버지, 남편, 그리고 아들과 지 끊임없이 여성을 남성에게 기대고 의존하게 하여 가부장제를 더욱 견고히 하는 악질 콤플렉스다. 여성을 무력하게 만들고, 미계발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들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공을 불행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다른 면에서는 그렇게도 이성적이고 성실한 여성들이 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선 이렇게도 의존적이고 요행을 바라는 것인가... 신데렐라는 단지 동화일 뿐이다.

·성 콤플렉스- 착한 여자 콤플렉스와 일맥상통한다. 그 배경엔 여자의 성(sex)을 욕구가 아닌 '남자의 성욕 해소와 생식을 위한 의무'로 보는 남성들의 이기적인 심리가 들어 있다. 왜? 왜 여자는 성을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왜 여자는 정절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불론 요즘은 이 성콤플렉스는 어느 정도 트인 게 사실이긴 하나 개인 눈으로 다시 주위를 바라보면 아직도 광고, 언론등 대중매체나 가정, 학교 등 주위에서 얼마든지 성 콤플렉스에 찌든 사례들을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다. 이유 없는 부끄러움은 가지지 말자.

·외모 콤플렉스- 역시 여자는 예뻐야 한다. 지겹도록 짜증나도록 들어온 그리고 나도 사실 많이 뻔어본 말이다. 부정하고 싶지만... 실제로 예쁜 여자가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보고 있는 세상이기여... 그래서 예쁘지 않은 여자가 살 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예뻐지기 위해 쓰러질 때까지 밥을 굶는 여자가 또는 죽도록 돈 벌어서 성형외과나 옷 가게에 다 갖다바치는 여자가 더 이상 생기기 않기 위해서라도 극복해야 할 콤플렉스다.

·지적 콤플렉스- 여자들을 가부장제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괴팍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콤플렉스다. 왜 여자 머리는 새대가리인지 똑똑한 여자는 시집도 못가는 것인지 생각을 해봤는가. 전자는 자라면서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이고, 후자는 똑똑한 여자를 못 참는 사회가 그들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들이 깨어나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열등감을 버리고 똑똑해져야 하고, 우리 딸들을 똑똑하게 키워야 한다. 여자 기를 죽여서 남자 기를 살리는 논리는 이제 그만두자.

·말팔 콤플렉스- 살림 밀천이라는 굴레를 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말팔들. 말 그대로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말이들의 순교적 희생을 보장하는(?) 콤플렉스다. 말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버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말이인 딸로서 부당하게 지워지는 희생과 강박관념을 버리라고 감히 요구한다. 말팔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자신을 찾자.

·슈퍼 우먼 콤플렉스- 이 시대 여성들은 참으로 대단하다. 능력 있는 직업여성이자 가정적인 어머니이자 내조 잘하는 현모양처이다. 그러나 그 뒤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었을 지를 생각해 보라. 집안일 때문에 마음껏 일을 할 수도 없다. 아이를 탁아소에 맡기고 직장엔 나갈 때마다 아이에게 미안하기만 하다. 퇴근 후에 부지런히 시장보고 집에 오

면 밀린 빨래와 설거지, 더러워진 집이 기다리고 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의 현재요, 기다리고 있는 나의 미래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달라야 한다.

감히 명서라 이르는 '일곱 가지 여성 콤플렉스'에 대한 나의 정리가 너무 미흡해 읽는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다. BUT 이 미흡한 글을 쓰면서 핀 수갑의 담배만큼 얼마나 창작의 고통을 실감했는지 모른다. 어쨌든 결론은 이 모든 콤플렉스는 여성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

<광고 I>

★대경연대 회의★

지난 11월 22일 1시에 청학동에서
무계, 오바쟁이, 팔취, 현운이, 양녀, 띠리,
랑네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1월 중순이나 말쯤에

『대경연대 해오름식』을

당론지발간과 일일호프를 경해서 할겁니다.

그리고 대경연대 회의의 이름도

새로 지읍시다.

1312 대경연대 주체는 랑네입니다.

◆ 활동보고 ◆

▶10/15 총동아리 연합회에 항의 방문을 했었다. 도 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동연에 열불을 토하며 화장실 신문물을 만들기로 작정했다.

▶10/23 1312 선전판이 드더 나왔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많은 관심 가져 주기를..

▶11/3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었다. 랑네, 띠리, 뽕뽕이, 양녀가 참가 했다.

▶11/11 선거날이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였다. 그러나 나름의 성과물을 가지고 다시 열심히 시작하리라.

▶11/19 음대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예상외로 상황이 무지 열악해서 안타까웠다. 앞으로 계속 관심가지고 살아야겠다.

▶11/22 대경연대회의가 있었다. 발대식을 해야했기에 많은 할 일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11/23 김분선 할머니 생신이었다. 언제 봐도 참 고으신 할머니시다. 오래오래 좋은 세상 보실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좋은 세상이 빨리 오길 바란다.

▶ 11/25 여성연대 한마당 행사를 위한 스터디가 있었다. 여성운동에 관한 토론토 있었고 레즈비아니즘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본 행사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광고Ⅱ>

선전판이 나왔습니다.

박불관에서 학교에 들어오는 길목에 세워졌습니다.
행사와 1312에 관련한 알림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론!!! 27일 선전판이 테러 당했습니다!!!! -.-;
우째 이론일이?!!!

◎ 총동연 유리창에 여성 성기가?!!! ◎

총동아리연합회의 유리창에 영남 대학교라는 글자와 함께 상징적인 모양의 여성 성기를 그려 넣었다. 여성주의 자치 모임 1312가 찾아가서 사유를 따져 물으니 동아리 연합회에 양기가 너무 세서 음기를 보충하기 위해 그랬다고 하더군요. 하하하

제거해 달라는 우리의 요청에 동연측은 개인의 창작물이며 음지에 있는 성을 양지로 끌어내려는 자들의 성해방에 대한 나름의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여성의 눈으로 그 그림을 보았을 때 일단 매우 불쾌했으며, 1312입장에서 봤을 때 여성을 바라봄에 있어서 전인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성기 중심으로만 사고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여성 성기를 유리창-즉,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그랬다고 해서 음지에 있는 성을 양지로 끌어낸 것은 아니다. 포르노 잡지를 광장에 놓아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양지로 끌어낸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아닐까...

또한 총동연측은 좇바위-지난 들풀제 포스터-그림이 나갔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여성 성기를 그랬다고 해서 항의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타냈지만 여성의 성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냈을 때에 받아들이는 여성과 남성의 반응이나 느낌이 그 포스터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성을 무시할 순 없다. 예를 들면 처음 1312는 다른 학교의 남학생에게서 이 소식을 접했는데 그 남학생은 농담조로 이야기를 전

했고 그러럼 그 그림은 하나의 가십이 되어 다른 학교에까지 전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총동연에서의 의도는 어떠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은 그 의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동연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입장들을 다 듣고도 그 그림은 절대 떼지 않겠다는 입장 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화장실 신문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다른 많은 시비쟁이들도 총동연으로 항의 전화를 하자!! [810-3740]

<광고Ⅲ>

★여성 연대 한마당★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여성 연대 한마당 행사가 있다.

1일은 <여성 운동과 연대의 날>로 4시에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 모임과의 연대의 시간, 6시에는 여성 운동가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다. 장소는 노천강당 전시실이다.

2일은 <우리는 사랑하고 싶다>의 날로 4시에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고, 6시에는 레즈비아니즘, 그것은 여성이 세상에 내지르는 분노이자 즐거운 선택이다.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있다. 장소는 노천강당 여학생 휴게실이다.

3일은 <친구야! 놀자!>의 날로 영남대 최고의 우정커플을 찾아라!!로 노천강당 여학생 휴게실에서 '벽을 넘어서'를 할 것이다. 여성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연대의 문제를 사고하였고 이에 우리는 행동을 통한 연대의 장을 만들었다.

● 시민 모임을 알려드립니다. ●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 모임”은 올해 초 대구 지역에 계시는 정신대 할머니, 학생, 기자, 변호사, 기업가등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시민 모임이 탄생하기 전에 ‘강제 종군 위안부’에 대해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고 추석등 명절이면 학생들이 할머니와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시민 모임 초기에는 체계적인 운영보다 주로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모임이 꾸려졌다.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자기 시간을 내어서 옆에서 간호해 드렸고 그런 일들이 할머니를 가깝게 느끼고 유대감을 형성시키게 하였다. 또 4월 중순경에 서울에서 있는 ‘아시아 여성 연대 회의’에는 시민 모임의 학

생 6명이 참가했다.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운동가들을 만날 수 있었고, 정신대 문제에 있어서, '연대'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매달 1번씩 열리는 정기 모임에서 할머니들의 근황이나 정신대 문제와 관련한 뉴스를 들을 수 있고 때때로 강연이나 비디오 상영을 하기도 한다. 매달 소식지를 후원하는 회원들이나 관련 단체에 보내고 있다. 현재는 상근 간사가 2명 있으며 좀 더 체계적인 틀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음악대 성폭력 사건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

0. 들어가며

음악대 성폭력 사건은 음악대의 수업방식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모두의 묵인하에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왔고, 피해자 여학우들은 자신의 음악인생을 위해 덮어두어야만 하는 실정이었다. 사건을 접수 받은 이후부터 음악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생각보다 오랫동안 관습처럼 굳어진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을 그리고 소수남성 중심의 권위주의의 심각성이 발견되었다.

1. 사건일지

- 11/11 1312에 처음으로 사건 접수
- 11/16 99년 음악대 학생회장 만남(여학생회 선거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 학생회장을 만나 음악대 상황 파악 및 사건해결을 위한 가해자 미팅을 맞춤)
- 11/17 가해자의 공식적인 사과 및 사과문 발표
- 11/18 합창단장(김관호)의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공식적인 사과는 매우 형식적이었으며, 위협적이기까지했다는 여러명의 진술에 따라 피해자를 다시 만남. 이 과정에서 언어성폭력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성폭력이 있음을 알아냄.
- 11/19 학생회장을 만나서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가해자의 정반대 입장 또한 전달받았음. 또한 성악과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로 함.
- 11/20 성악과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며, 합창단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악과, 아니 음악대 전체의 성폭력 문제가 이미 위험수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자를 만나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전달.

- 11/23 음악대 정문 게시판에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공고

-> 설문조사 결과는 100%의 여학우가 거의 매일 언어성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성추행 또한 50%에 가까운 여학우들이 상시적으로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강간 및 강간미수 또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성폭력들이 선배에 의해 일어나고 있었으며, 교수 및 강사 또한 간간히 일어나고 있었다.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 및 상담기구 설치 그리고 음악대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회의의 구성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에 100%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해주셨으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 11/23 음악대 여학생회장을 만남.

이 과정에서 음악대 성폭력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이로 인한 여학우들의 고충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후에 음악대 성악과 성폭력 사건의 해결 방향을 합창단장 중심이 아닌 음악대 내 성폭력 근절 그리고 올바른 성문화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연대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연대회의는 음악대 여학생회, 학생회, 각 과 학생회장 및 여대표자 그리고 여성주의 자치모임 1312와 음악대 교수들로 구성된다.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위의 일지 안에 정리했음.

3. 앞으로의 진행방향

음악대의 특수한 문화를 이해하느라 보낸 시간이 너무 많았다. 일단 가해자의 사과와 사과문을 받아냈으나 이것은 사건을 빨리 조용히 마무리 짓기 위한 형식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사과를 통해 이 성악과 문제는 일단락 짓는 것으로 합의 받으며, 이후에 음악대 내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내에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이후에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기구 설치 및 상담기구 그리고 처벌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임시적인 자치규약이나 논의 기구를 만들고 감시 및 교양이 필요하다.

음악대 사람들의 비협조와 1312의 일정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늦어지고 있지만 꾸준히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